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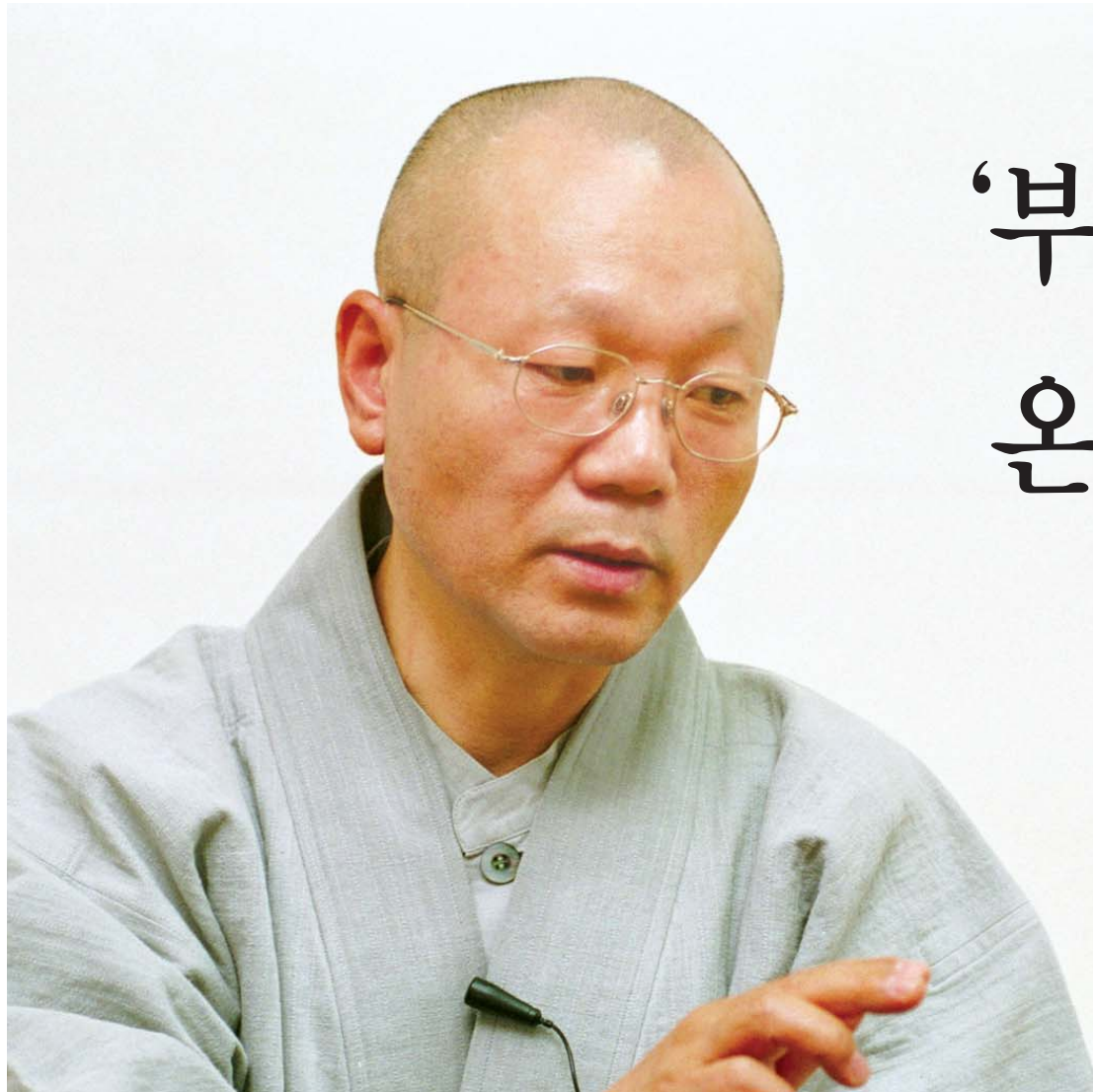


### 불광사 주지 지홍 스님

“우리는 참으로 반야(지혜)의 눈을 크게 떠야 한다. 물질과 감각으로 착색된 미혹에서 벗어나 인간실상을 바로 보고 인간복지를 회복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넘치는 힘과 충만한 공덕을 보고 무한의 지혜와 용력을 발현하여 이 땅위에 평화 번영의 굳건한 터전을 이룩하여야겠다. 이것은 인간번영의 영광을 이 땅 위에 구현하는 일인 것이다. 이에 본지 <불광>은 감히 우리의 역사와 생활 속에 부처님의 위광(威光)을 전달하는 사명을 자담하고 나선다. 이로써 조국의 발전이 기초할 정신적 기반과 동력을 공여한다.”

1974년 11월 창간된 월간 <불광>의 창간사 뒷부분이다. 중생들이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처님의 위광을 전달하는 사명을 자담했다는 그 원력이 400호까지 이어졌다. 34년의 대장정에서 월간 <불광>은 수많은 사람들을 불교의 길로 인도했고 불자들을 일깨우고 불자로서의 삶에 감사를 하게 했다. 우리 시대에 있어 지난 34년은 어느 때보다 변화가 많았다. 그런 시대의 궂절을 함께 하며 창간의 정신을 오롯이 지켜왔기에 오늘날 월간 <불광>은 단순한 교양잡지를 넘어 전법의 보탑으로 칭송받고 있는 것이다.

400호 특집을 담은 2월호를 발행한 <불광>은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축하와 나눔의 밤도 가질 계획이다. 월간 <불광>과 ‘불광법회’ ‘불광사’는 한 몸으로 이루어진 전법의 보탑이다. 그 중심에서 있는 불광사 주지 지홍 스님을 만났다.



# ‘부처님의 빛’ 온누리 비추길...



월간 <불광> 창간호(앞)와 400호 표지.

—발행인으로서 지령 400호를 맞는 소감이 남다르시겠습니까. <불광>이 34년간 이어져 온 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지요?

은사인인 광덕 큰스님께서 대각사에서 3평짜리 방 하나를 사무실 겸 숙소로 쓰시며 <불광>을 창간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인쇄소 사무실 한 구석에 책상 하나를 놓고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생각하면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월간 <불광>이 400호 까지 이어져 온 바탕에는 창간 정신을 잃지 않고 지켜온 광덕 큰스님과 그 유지를 받들어 온 운영진과 편집진의 원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힘은 독자들의 관심과 격려였습니다. 이제 <불광>은 창간의 원력과 독자들의 참여를 아우르며 더욱 큰 빛을 발하는 전법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간 <불광>의 창간배경과 창간정신이 궁금합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불교는 산중사찰을 고집하면서 과거의 전통을 유지하는 데 주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서양의 종교와 사상이 물질듯이 유입되었지만 불교는 제대로 대응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던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용돌이 속에서, 시대의 절대적 명령의 요구에 발맞춰 한국불교를 다시 중흥시키려는 원력으로 도심포교의 선구적인 역할을 자임한 분이 바로 월간 <불광>을 창간한 광덕 스님이었습니다. 스님께서 수행과 전법을 다르게 생각하던 당시의 교단풍토를 개선하고, 전법으로 이 땅에 바라밀교도를 건설하기 위해 ‘일체는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것이요, 마하반야바라밀 속에 모든 것이 구족해 있다’는

바라밀관을 펼치며 1974년 9월 종로3가 대각사에서 창립법회를 시작으로 불광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같은 해 11월 문서포교로 부처님의 빛을 전달하기 위해 순수불교 교양지 월간 <불광>을 창간했습니다. 그 다음해 10월에는 대각사에서 불광법회를 불광했으며, 1982년 당시 허허벌판이던 잠실빌에 현대식 부처님도량 불광사를 건립해 도심포교의 전기를 이뤘습니다.

—광덕 큰스님께서 도심포교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시고 그 원력이 지금까지 확대되어 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덕 스님은 불광사·불광법회와 월간 <불광>을 중심으로 ‘우리는 햇빛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응명정진하여 바라밀국도 성취한다.’는 불광바라밀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 한국불교가 지향해야 할 대중포교의 방향을 선도하신 겁니다. ‘불성생명을 추구하는 순수불교’를 기치로 내건 불광사·불광법회는 ‘입문교육, 바라밀교육, 명교사교육’ 등 적극적으로 꾸준한 교육을 통해 신도들의 신심을 향상시키고 자부심을 드높여 전법실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구역법회를 중심으로 하는 범등조직을 체계화시켜 모든 법회가 신도들의 자발적 참여와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인 봉사활동(군부대, 교도소, 병원 등)이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불광회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문서포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79년 설립된 불광출판사는 월간 <불광>과 함께 문서포교의 한 축을 담당하며, 현재까지 약 240여 종의 불서를 펴

내 독자들의 실행활동을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9월 격월간 불광사보 ‘공감 Plus’를 창간했습니다. ‘공감 Plus’는 여타 사보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역잡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부처님 법을 통해 불광사가 위치한 송파지역의 문화와 정보, 현안 등을 다루며, 지역 주민과 함께 스님없이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불광회는 바라밀다함장단과 마하바디함장단을 창단해 전법기를 제작·보급하며, 법회와 공연을 통해 노래(승성공양)로써 활발한 전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

신하여 불광사·불광법회, 월간 <불광>, 불광출판부, 불광유치원, 불광교육원이 각각 독립적인 운영을 하며 상호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월간 <불광>은 그간 내용적으로나 형태 그리고 각종 행사주관 등 많은 변화를 해 왔습니다. 불광의 변화는 한국불교 잡지의 변화라 할 만합니다. 그간 <불광>이 걸어 온 길을 되짚어 주시고 향후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974년 창간 때부터 순수불교의 실행과 창조적인 생활인을 위한 교양지를 자처한 월간 <불광>은 비불

간 <불광>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좀 더 대중적으로 쉽게 전해질 수 있도록 내용 및 디자인의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제호를 한글로 바꾸고, 판형을 키우며(4×6판→변형 신국판), 칼라 지면을 대폭 확대(16p→48p)하여 시원하게 보여줄 수 있는 편집 디자인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살아 숨 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재미와 감동을 나누고, 진리의 길을 안내하는 세련된 잡지로 거듭나며 불교잡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불교적 삶의 양식이 녹아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생활불교 가이드로서, 생활 속에 유익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실용불교를 지향하며 행복한 기운을 부러워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불광사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창불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불광법회와 불광사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사람과 일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현재의 공간으로는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제약이 있어 중창불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자들의 수행과 각종 의식, 전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확산시켜 나가는 ‘불광 가족’의 새로운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임연태 부국장

## 월간 <불광> 34년 대장정...지령 400호 발행 문공부·한국잡지협회서서 우수 잡지 선정도

습니다. 또 불광교육원을 개원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입문에서 시작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포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광덕 큰스님의 뜻에 따라 불광유치원을 개원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어린이들에게 불성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으며,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월간 <불광> 주최로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를 열어 아이들의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부처님을 모셔주기 위한 행사를 10회 동안 개최했습니다. 현재 불광회는

자들에게 법을 전하고, 초보신자들을 교육, 실행을 지도하는 실행잡지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불교계의 유일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양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수한 필진과 세련된 디자인, 참신한 기획으로 불자들의 지적 욕구와 의사소통 형성을 충족시켜주며 불교잡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월간 <불광>은 교계 안팎에서 품격 높은 불교잡지로 인정받으며 1994년 ‘제3회 문공부 선정 우수잡지’, 2005년 ‘한국잡지협회 선정 우수잡지’로 선정되어 표창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월

**평생부자지갑**

◆무자녀 소원 성취 지갑

#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가족 친지에게 새해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새해 소원성취의 선물!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2008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 막아!!**

다쳐올 화를 미리 쫓는 삼고금강저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뜻깊은 삼재소멸 선물로 품격이 있습니다.

2007년에 드는 삼재 2008년 뱀삼재 2009년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살아야 하므로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면서 위법하지 말고 일을 벌이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다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액운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


## 松廣寺 講院 總同門會 定期總會

송광사 강원 총동문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동문 스님들께서는 수행정진에 바쁘시더라도 수회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탁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시 : 2008년 2월 29일(금) 낮 12시

◇ 장소 : 서울 길상사



■ 안건 : (1) 동문회 수첩 제작  
(2) 성지순례건

**松廣寺 講院 總同門會 會長**